

시론 / 파리 문화예술 / 한인터뷰 / 프랑스 요리이야기 / 테마 포커스 / 업체탐방 / 학교정보 / 파리에서 만난 사람
파리생활정보 / 프랑스 여행정보 / 한소리 독자광장 / 여론광장 / 한소리 기획특집

♣ 문/화/정/보

“몰리에르가 한국을 만났을 때”

몰리에르(Moliere)와 르리(LULLY)의 코메디 발레 Le Bourgeois Gentilhomme(귀족놀이)를 한국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CDBB 초청으로 2004년 10월 11일에서 16일까지 막을 올리게 된다. 이 작품은 프랑스 희극을 완성시킨 작가 몰리에르(1622-1673) 작품을 한국과 프랑스풍이 조화된 퓨전코미디로 각색한 것이다.

CDBB(Centre Dramatique National de Bretagne : 브르타뉴 국립 연극센터)는 로리앙(Lorient)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연극센터의 소장은 에릭 비니에(Eric Vigner)이고 예술감독은 베네딕트 비니에(Benedicte Vigner)가 맡고 있다. 에릭 비니에 소장은 파리국립연극원(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Art dramatique de Paris)에서 연기와 연출을 배우고 그동안 많은 작품을 연출해왔다. 1995년에 문화부장관에 의해 에릭 비니에가 CDBB 소장으로 임명이 된 후 여동생 베네딕트와 같이 연극예술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CDBB는 연극예술의 미래를 바라보며 청작품에 우선을 두고자 일해왔다. 깊은층의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키우는 역할은 물론 관객들과의 새로운 밀접한 관계를 갖고자 하고, 로리앙이 프랑스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연극활동지역의 메카가 되고자 노력한 결과 몇년사이에 CDBB의 꾸준한 예술활동으로 지금은 프랑스에서 청작활동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

“귀족놀이” 초청 공연이 이루어지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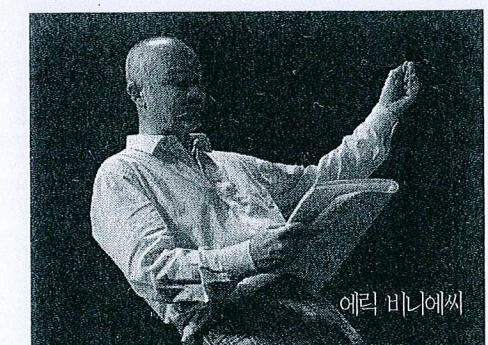
2002년 말, 한국국립극단이 프랑스 외무부 예술진흥협회의 추천을 받은 비니에를 초빙해 프랑스로 전작기작품을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당시에 연출가 에릭 비니에는 마그리트 뒤라스의 SAVANNAH BAY를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공연을 마친 후였다. 그 후 그는 서울에 3차례에 걸쳐 체류했고 2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몰리에르의 귀족놀



이가 먼저 한국에서 2004년 9월 11일 서울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처음으로 프랑스 연출가에 의해 작품의 막이 올려졌으며 또한 국립극단 단원들 전체가 첫 해외 진출작으로 프랑스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

연출가 에릭 비니에는 서울국립극단에 대해 “아주 격조 높은 예술극단이고 단원들의 연기능력도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작품을 위해서 원작을 그대로 살리되 음악, 춤, 의상 등을 한국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국립극단은 물론 원작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 바로크 음악가 장 밥티스트 르리의 음악은 국립관현악의 리이브로 연주하고 극중에서 보여주는 춤은 국립무용단의 출연으로 한국적 전통 춤으로 무대에 올려진다. 한 외국인이 연출하는 작품에 이와 같이 위신과 명성이 있는 각 분야 예술분야 단원들이 총 출동하는 것은 매우 예의적인 일이다.

에릭 비니에는 “몰리에르의 귀족놀이는 ‘티안’과 ‘미래’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며 “몰리에르의 작품은 희극성 속에서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재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1670년에 공연된 귀족놀이는 5막 신문화극으로서 터키의 풍속을 집어넣은 희극을 몰리에르에게 쓰라고 한 뿐이 14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음악은 르리(Lully)가 맡



1

“귀족놀이” CDDB 공연

“몰리에르가 한국을 만났을 때”

있었다. 내용은 주인공 주르뎅(Jourdain)이 사교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민으로서 벼락부자가 된 결혼한 부유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주르뎅은 다른 한 후작부인 도리멘느(Dorimene)의 눈에 들기 위해 귀족들의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당시 세태를 풍자한 작품인데 기존작품이 귀족계급에 들어서기 위해 벌이는 부르뎅의 영터리 벼락귀족의 우스꽝스러운 소동을 풍자극으로 꾸몄다면 이번 에릭 비니에의 연출은 주르뎅이 후작부인을 만나 사랑을 통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자기도 모르고 있던 세계를 발견하고 예술, 음악, 춤, 시, 언어, 무술, 의상과 웃는 철학을 알게 되는 과정을 한남자의 꿈과 환상이란 축에서 풀었다고 할 수 있겠다. “주인공인 주르뎅은 문화와 상식이 없는 사람이나 사랑으로 세상을 만들고자하는 인물”이라고 비니에는 말한다.

에릭 비니에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한국 음악, 무용, 노래에 아주 놀랐고 감명을 받았으며, 서민적이면서 귀족적인 한국정통음악을 한국 정통악기로 연주해서 Lully의 음악을 듣게 해야겠다고 결정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한다. 연출 준비자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전치를 탄 적이 있는데 문이

닫히는 멜로디가 귀족놀이의 터키 세레모니의 개막멜로디가 되어야겠다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한다.

베네딕트 비니에씨가 말하는 로리앙

로리앙은 3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가 짧은 도시이다. 최근역사를 보면 1944년에는 도시가 파괴되었고 80년대는 경제적 위기가 있었던 도시로서 앞으로 미래를 행해 발전을 해야 할 도시라고 베네딕트 비니에는 말하고 있다.

“항구도시로서 바다를 넘어 타국과의 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상력과 기대감을 가지는 예술의 도시로 성장하는 도시로 키우고 싶습니다. 미래를 건설하는데 ‘로리앙에서 동양까지’(DE LORIENT A L'ORIENT) 컨셉이 동양문화를 소개하는 대축제가 되어 로리앙 도시가 동양과의 계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예술, 문화, 경제, 정치, 철학, 건축분야 등 여러 분야에 프로젝트와 아이디어가 맺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 컨셉의 첫 번째 모험으로서 같이 동반자가 되어 관계를 맺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2004년 10월 11일에서 16일 동안 귀족놀이 공연을 중심으로 로리앙에서 다른 행사들이 이루어진다

“이 기회로 프랑스 전역에서 한불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정치인들, 기자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귀족놀이’ 공연에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관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베네딕트 비니에는 덧붙였다. 그는 오늘도 열심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또 그녀는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로 로리앙과 동양의 영구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길 바라며 첫번째 초청국으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로리앙에서 동양까지’(DE LORIENT A L'ORIENT) 컨셉이 동양문화를 소개하는 대축제가 되어 로리앙 도시가 동양과의 계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예술, 문화, 경제, 정치, 철학, 건축분야 등 여러 분야에 프로젝트와 아이디어가 맺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글: 전현주 한의클리 지방통신원/번역, 통역가)

LORIENT



베네딕트 비니에 씨

고 한다. 이로써 로리앙 시민들이 어제의 한국과 현재의 한국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프로그램을 강연회, 전시회, 만남의 시간, 필름 상영,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 기간 : 2004년 10월 11일에서 10월 16일까지

▶ 입장료 : 20유로(26세 이상), 14유로(26세 미만), CDBB에 도착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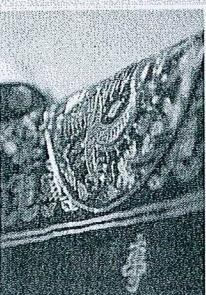
▶ 버스편 : B1-B2노선 이용, 정거장 Merville에서 하차

▶ 자가용편 : Lorient Universite 쪽으로 나와서 Merville 방향쪽으로 가다가 이정 화살표를 따라가면 됨(Merville 훌에 주차)

▶ 기차편 : Lorient역에서 하차

▶ 비행기편 : Lann-Bihoue 공항이용

★ 로리앙에서 만나는 “한복”



파리 한복 박물관 건립 준비위원회(이하 건준위)에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귀족놀이” 공연이 열리는 로리앙에서 한복 전시회를 개최한다.

CDBB는 특히, 한국 국립극단의 «귀족놀이» 공연이 한국문화를 프랑스에 알릴 수 있는 적합한 기회라 판단. 한국 문화를 좀 더 다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한국의 복식 문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건준위를 초청하게 된 것.

몰리에르의 «귀족놀이»가 프랑스 문화를 반영한 대표작이라는 것을 감안, 이번 건준위의 한복 전시회는 한국 고유의 복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어떻게 다양화지, 신분별로 보는 한국 전통 의상을 전시 할 계획이다. 한국의 춤과 오페라가 어우러지는 이번 행사 기간 중, 한복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프랑스의 대표 희극과 한국 전통 의상이 만나는 공간으로, 한국 문화를 보다 폭넓게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듯 하다.

기간 : 2004년 10월 7일- 10월 16일까지

오프닝: 2004년 10월 7일 오후 2시

장소 : CDBB Théâtre de Lorient à Lorient

주최 : CDBB,

파리 한복 박물관 건립 준비위원회

“이제, C.C.C.에서 프랑스진출의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하십시오”

토탈행정업무 대행회사 C.C.C.(Chairman Consultant & Co)

- 은행대출업무 상담대행
- 토탈 회사 업무대행(설립, 매매, 양도, transaction, 법정관리)
- 법정, 행정서류 대행(동기우편, Huissier, 사기, 채권, 채무, 차압, 고소, opposition, 영수증오류, 손해배상)
- 전문 비즈니스 번역, 통역, 특별 mission대행
- 투자자 추천, 바이어추천, 바이어상담
- Conference(회의), Reception(연회) 주관대행

C.C.C. 후원업체 : Deutch은행, Dexia은행, MPS은행, CLE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 Societex파이낸스, legifrance, Jurifrance, etc



C.C.C.(Chairman Consultant & Co)

한국부: Mme.Yun

Tel: 06.1890.1675 Fax: 01.4337.9358

e-mail:mihai@yahoo.fr

프랑스부: Mr. Roux

e-mail:bernard.roux@remedial.fr

www.chairman-consultant.com

이 경인 미용실

고객갈등 서비스 선언

노닝필, 피부관리 20% OFF

타이전통 치료 맞사지(1시간 20분) 50유로

인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한의사

출신의 전문가 James Kim이 직접 시술함

발맞사지 (45분) 20E

TEL: 01 43 06 45 91

163 Rue de Sevres 75015 Paris (M)6. Sevres Lecourbe

아시아 슈☆퍼

토.일 10% 할인
배달전문

TEL 01.4261.0639

FAX 01.4261.0996

H.P. 06.0969.1163

31 rue d'Argenteuil

77, 14번 Pyramides

모노프리 뒷문

(영업시간 10시30분~20시30분)

◇ 아시아와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추석선물세트(홍삼, 메실엑기스, 고려인삼농축액/모나케수정파스혜)

① 세로운 슈퍼 세로운 물건

유효기간 한달 미만인 제품을 찾으시면 20% 할인

② 저렴한 가격

다른 한국 슈퍼보다 비싸게 구입 시 환불

③ 주차해결

50유로 이상 구입시 1시간 무료파킹

* 특판: 고급열차 100g당 3.8유로,

아시아김치특판 100g당 0.75유로, 각종 고기류, 반찬류(20가지)

* 즉석에서 드실 수 있는 음식: 김밥+컵라면, 도시락, 데자

족발+김치+새우젓 판매 /구입 후 매장내 식사 가능-파리 유일!

* 상설 20% 할인 코너 신설

한국 야채 입하 10월 13일

C&P ‘쎄엔베 인터네셔널’이 당신을 향해 새롭게 달립니다!

• 프랑스 정식 등록업체
• 영업배상보증 가입업체

보유 및 제공 차량
승용차, 리무진, 벤(7~13인승)
트럭(5~20m²), 특수차량(분장차, 사다리차, porte voiture등)

① 빠리, 지방 및 유럽전역 포장 이사
② 해외 이주화물 대행 / 수출입 및 대행
③ P/P, EXPO, 출영 및 각종 행사 지원
④ 업체 방문 및 유명지 답사